秋史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

受賞作品展

日時：一九九〇年十一月一九日～十一月二三日

場所：禮山文化院展示室

主催：秋史金正喜先生記念事業會

主管：社團法人禮山文化院

審査委員

石峰　高鳳柱

剛庵　宋成鏞

玉峰　趙基順

審査委員長

月汀　鄭周相

嘉軒　崔完秀

松泉　鄭夏建

圭堂　趙琮淑

뜻깊은 展示자리

鄭 漢 模 (秋史金正喜先生 記念事業會 會長)

秋史先生을 追慕하는 全國 書藝白日場이 지난十月二十八日 맑은 가을 하늘아래 由緖깊은 秋史故宅에서 盛況裡에 擧行되었습니다.

全國에서 應募한 二百餘名의 作品에서 추려진 七〇餘名의 本選진출 書家들이 곱게 물든 은행잎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수놓은 차일아래 따뜻한 담장 안 마당에서 精誠과 技法을 다하여 두 시간 가까이 써낸 作品들은 그대로 모두가 훌륭한 作品들이었습니다.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審査를 거쳐 뽑은 受賞作 가운데 入選 이상의 作品만을 여기 禮山文化院 展示室에 展示하게 되었습니다.

東洋의 書法精神을 韓國의 秋史精神으로 定立하신 金正喜先生은 또한 技法을 超脫하는 脫法의 境地까지 書法의 眞隨를 터득하신 金正喜先生은 한걸음 더 나아가 書를 造型藝術의 世界로 그 領域을 擴大하는데 우리나라에서 獨步的인 寄與를 하셨습니다. 秋史書法의 藝術性이 오늘날에 와서 더욱 빛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秋史先生을 기리고 그 높은 精神과 方法을 繼承發展 시키는 일은 우리 後學들이 맡아야 할 責務요 使命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일에 參與하여 훌륭한 力量을 보여주신 特選·次下·次上 受賞作家 여러분께 뜨거운 讚辭를 드립니다.

白日場 開催에서 부터 展示會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일을 積極 推進해오신 禮山郡 權五昌 郡守님 그리고 禮山文化院 李恒馥 院長을 비롯한 여러분의 勞苦에 충심으로 感謝의 인사를 드립니다.

所重한 展示

權 五 昌（禮山郡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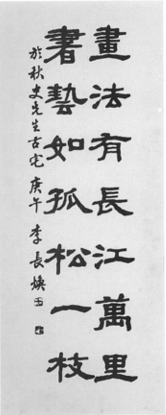
오늘을 사는 우리 世代의 所重한 資產이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 資產과 未來의 可能性을 언제나 所重하게 간직하면서 새로운 智慧를 보태나갈때 文化民族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더욱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秋史先生의 얼이 살아 숨쉬는 書藝의 고장 우리 禮山에서 개최되는 이 作品展이 우리고장 文化發展을 爲한 기름진 토양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精誠스럽게 화선지에 담아 놓은 珠玉같은 作品들은 우리들의 삶에 餘裕와 智慧를 듬뿍담아 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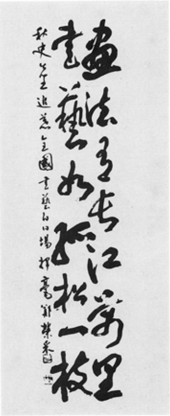
무르익어가는 가을 思索의 季節에 이 뜻깊은 秋史先生 追慕 全國 書藝白日場 受賞作品展을 갖게 된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갖는 秋史先生 追慕 全國 書藝白日場 受賞作品展은 秋史先生이 남긴 格調높은 文化와 秋史先生의 偉大한 書藝精神을 繼承함은 물론 우리고장 書藝發展의 새로운 里程表가 될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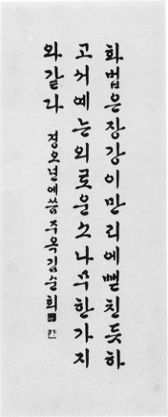
예로부터 뿌리깊은 文化와 學問을 崇尙하며 살아온 先祖들이 남긴 格調높은 文化와 발자취는 우리들의 삶에 韻致와 餘裕를 줄뿐만 아니라 이번 秋史先生 追慕 全國書藝白日場에서 뛰어난 創意力과 新新한 기풍으로 入賞의 영예를 차지하신 受賞者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아낌없는 聲援과 祝賀를 드리면서 至誠어린 마음으로 이뜻깊은 作品展을 준비하여 주신 禮山文化院 李恒馥 院長과 관계자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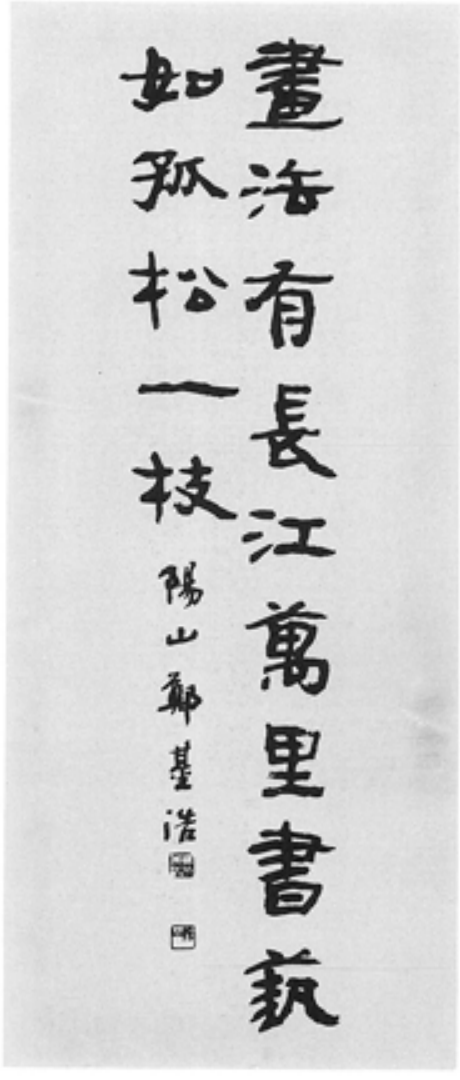
舒庵 李 長 煥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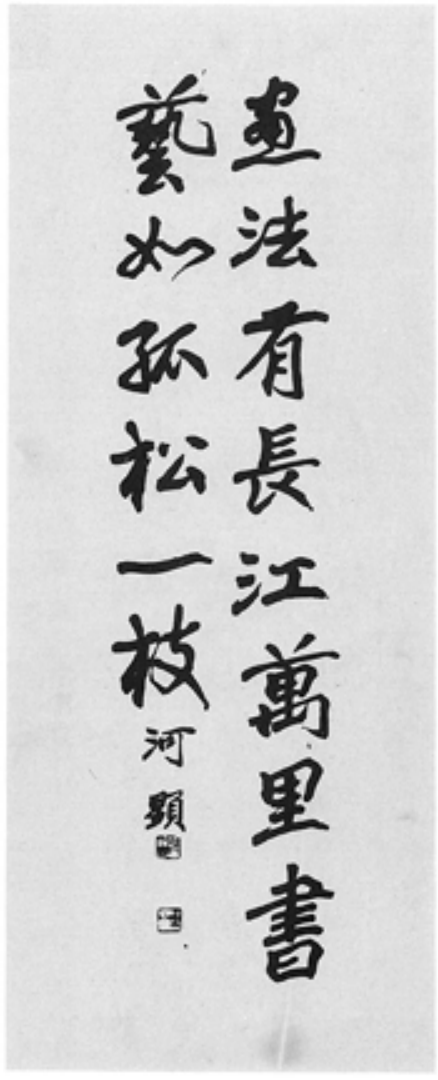
炫昔：鄭 榮 采 (경기,과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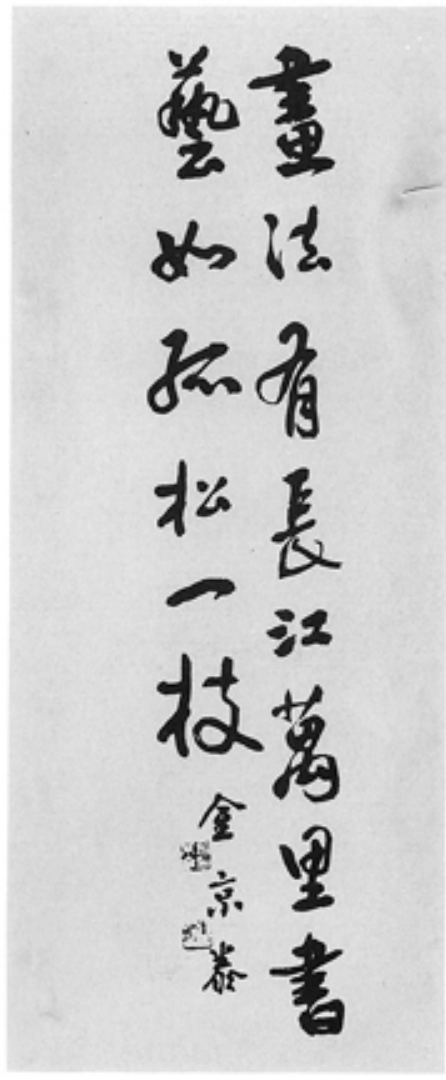
朱玉：金 順 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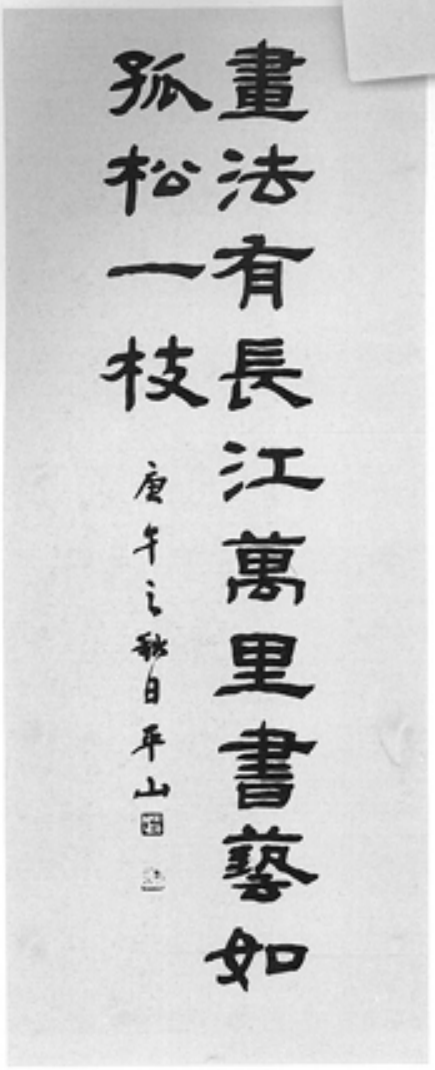
陽山：鄭　基　浩 (경남,장승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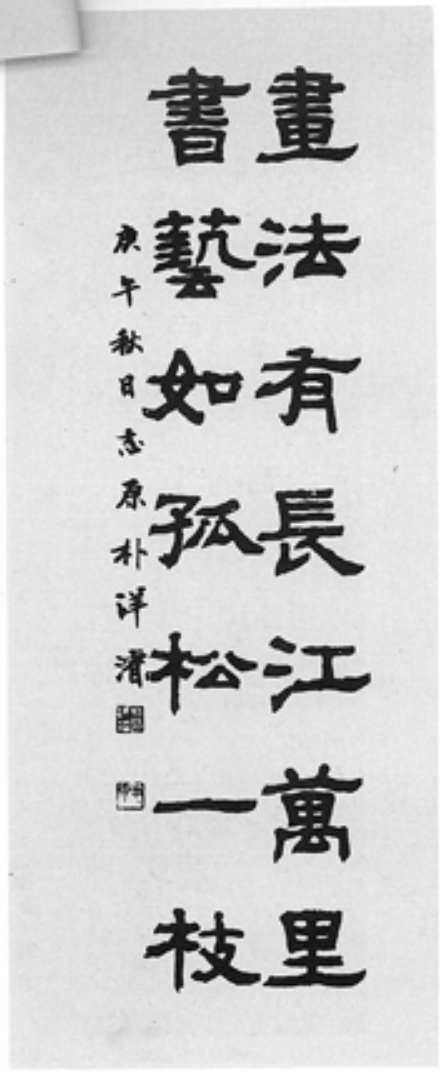
魯山：河　顯 (전북,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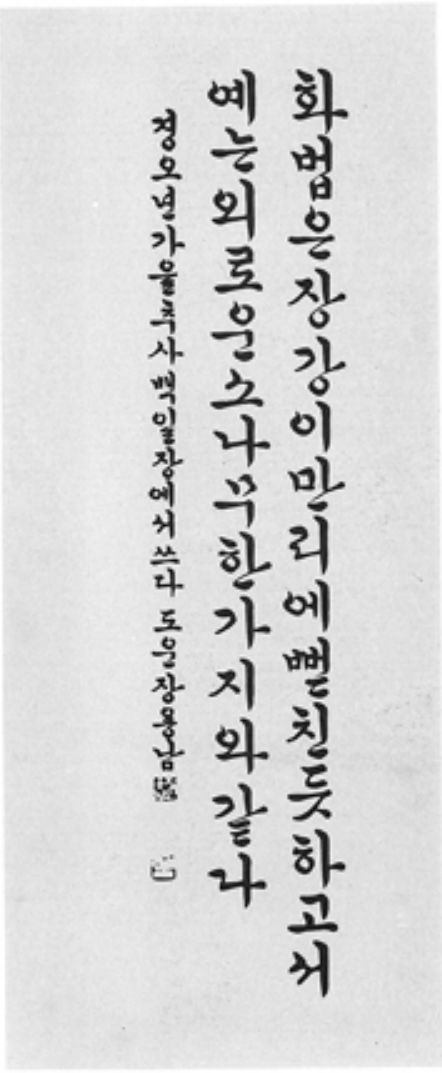
東鳩：金　京　泰 (경기,안양)



平山：宋　根　福 (경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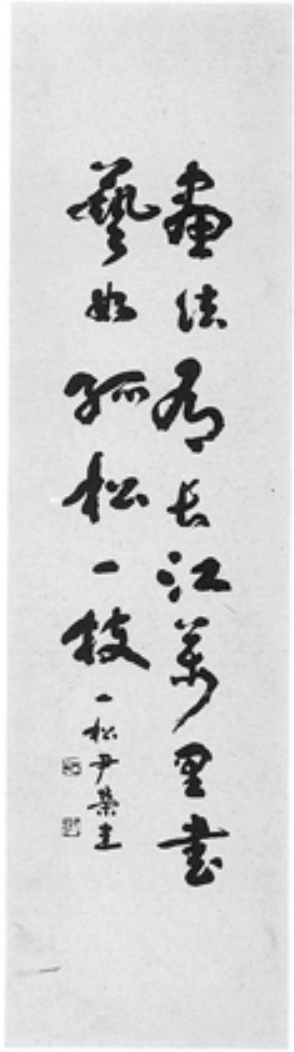


志原：朴　洋　渭 (충북,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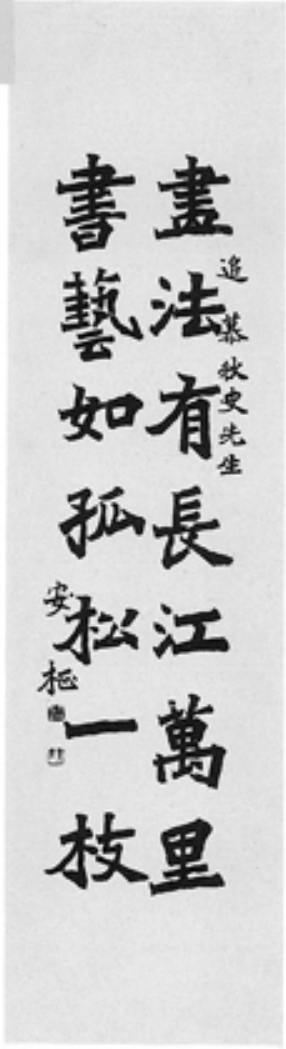


도운：張　用　南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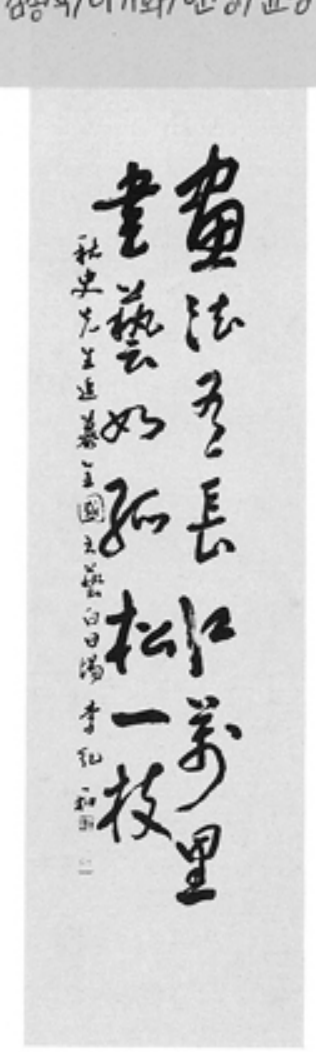
정영하/김송석/이기화/안정/윤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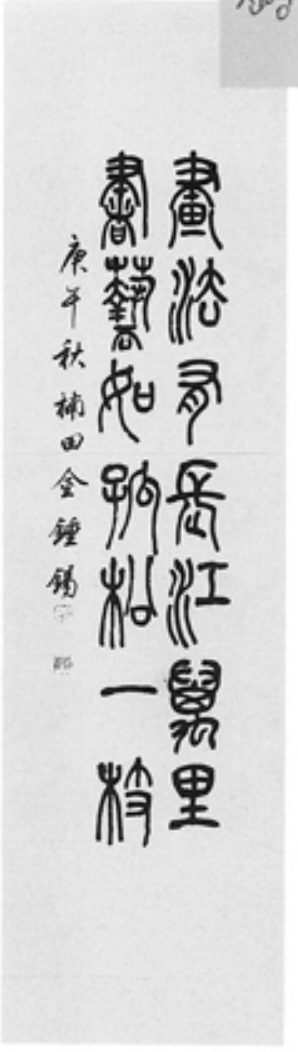
一松：尹 榮 圭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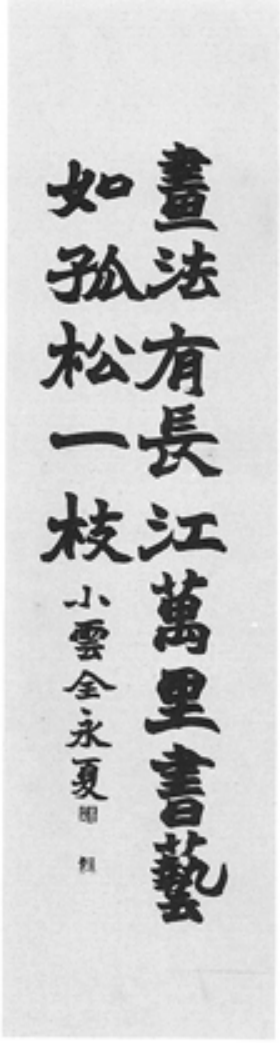
素里：安 樞 (서울)



指天：李 紀 和 (경기,안양)



楠田：金 鍾 錫 (전북,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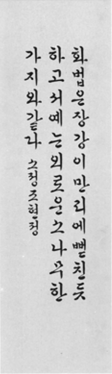
小雲：全 永 夏 (충남,서천)

特 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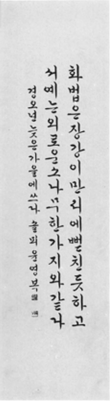
최형주/이경란/조현정/윤영복/최순례

碧下 : 崔 炯 柱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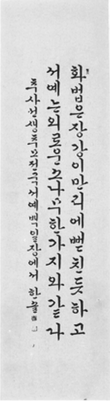
松庭 : 李 瓊 蘭 (서울)



소정 : : 趙 賢 貞 (서울)



솔뫼 : 윤 영 복 (경기,성남)



한솔 : 崔 順 禮 (전북,군산)

期待에 못미친 아쉬움

鄭 周 相（審査委員長）

심사위원 全員이 作品 전부를 현장에서 둘러본 다음 그 所感을 綜合하여본즉 『期待에 크게 못미친 다는 아쉬움』 그것이었다.

서예계의 큰 별이였던 秋史先生을 追慕하는 그 意義에 걸맞는 알찬 作品들이 科場을 빛내어줄 것을 期待하고 이 白日場이 企劃되었을 터이지만 워낙 期間이 촉박하고 弘報未及으로 말미암아 豫選에서 부터 凶作이었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明年 二回大會는 보다 치밀한 計劃과 심도있는 弘報로서 名實相符 全國 規模의 盛大하고 內實있는 大會가 되도록 우리 審査委員들은 입을 모아 主催側에 당부하였다.

당일은 快晴 溫和한 가을 날씨에 由緖깊은 故宅의 뜰악 遮日 아래에서 이루어진 白日場이라 자못 古風스런 韻致가 있긴 하였지만 席上揮毫란 아무래도 平素의 實力을 十分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入選圈은 비교적 厚하게 뽑기로하여 6할가량을 選에 올린 대신 유감스럽게도 壯元은 해당작을 찾지 못하였다. （今年의 壯元에게 돌아갔어야할 副賞金을 明年의 壯元에게 보태기로한 主催側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낙선작의 대부분은 基本筆法을 바르게 배우지 않은 것들이었으며 글씨는 괜찮았는데 誤脫字가 있어 낙선 處理된 것도 더러 있었다. 藝字를 略字로 쓴답시고 芸(향풀운)字로 쓴 失手도 보였다. 四君子는 화제 글씨가 그 內容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건데 대체로 글씨공부가 弱하였고 國文은 半切紙에 어울릴 글자 크기로 잡아쓰지 못한게 많이 보였다.

圖錄을 내면서 …

墨鄕의 傳統을 繼承 揭揚하는데에는 옛科場을 現代에 再演 實現해 보는 書藝揮毫大會를 심어서 키워내기로 했다.

이는 그 어느고장 보다도 歷代로 이름을 떨쳐 빛을 낸 書家(名筆)가 나와서 그 書脈을 지니고 또 이어져 내려오는 墨鄕이 禮山이기에……

그 再顯이란 亦 그어려움을 實感 해본다. 고장을 지킨다는 執念으로 해낸상도 싶다.

여기에서 그 弘報期日이 없었던 첫 科場임에도 全國에서 고루 應해 준 書家들이 있었다는 事實은 앞으로 이科場의 昇華를 期約 해주는상도 싶어 參與 해준 書家들의 그 고마움에 合掌한다.

壯元이 없어서 아쉬움을 禁할수 없다. 그러나 一九九一年 六月 秋史달에는 첫 壯元과 합쳐서 나와 줄것을 期待를 또한 期待해 본다.

그리고 이고장에서 解纜出帆을 시킨 全國 書藝의 科場은 權五昌 城主로서는 揭記의 治迹인상도 싶다.

또한 科場의 主催를 맡아주신 秋史先生 記念事業會 鄭漢模 會長(前任 文公長官)님에게도 感謝를 드리며, 審査를 맡아주신 委員님의 勞苦에 謝意 를 드린다.

禮山文化院長 李 恒 馥

入賞科生 名單

等位	姓名	住所
次上	李長煥	서울 강동 길동 363~2
〃	鄭榮采	경기 과천 별양 1~3
〃	金順姬	서울 은평 불광 434~11
次下	鄭基浩	경남 장승포 불광 434~11
〃	金京泰	경기 안양 관양 뉴골든A다동
〃	河顯	전북 이리 창인1가 17~1
〃	朴洋濬	청주 충주 내덕2동 59~4
〃	宋根福	경기 수원 판달1가 93
〃	張用南	서울 승과 가락본동 50
特選	全永夏	충남 서천 장항 창선2리 486
〃	尹榮圭	서울 강서 염창 275~5
〃	李紀和	경기 안양 석수3동 785~16
〃	金鍾錫	전북 이리모현1가 423~3
〃	安柾	서울 종로 낙원 284~6
〃	李瓊蘭	서울 동대문 답십3동 464~1
〃	崔炯柱	서울 강서 등촌2동 513~1
〃	趙賢貞	서울 은평 불광2동 171~28
〃	崔順禮	전북 군산 문화 893~34
〃	윤영복	경기 성남 태평2동 3309~434
入選	鄭惠慶	대구 동구 효목1동 163~20
〃	沈映洙	서울 관악 봉천3동 14~92

等位	姓名	住所
入選	허정무	충남 아산 신창 읍내리
〃	이영미	충북 청주 사직2동 쌍용A3동 201
〃	崔信娥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83~259
〃	金鎭子	충북 청주 내덕2동 407~5
〃	金廷禧	서울 성북 동선5가 13~3
〃	金順男	경기 안양 석수1동 182~2
〃	金榮實	경기 성남 장대원2동 2999~15
〃	李馥春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	金正淑	경기 성남 수진2동 4004
〃	孫賢周	전북 군산 문화 893~34
〃	李海寬	충남 청양 비봉 강정 365
〃	金正泰	전남 목포 남교동 5~5
〃	金正道	대전 동구 인동 176
〃	尹珍亨	충북 청원 북이 장양 20
〃	洪鍾律	서울 동대문구 이문 270
〃	吳文景	대구 남구 봉덕1동 585~18
〃	崔秉弼	부산 광안2동 142~26
〃	李相元	서울 종로 신교 6~47
〃	李鍾珉	부산 동구 수정1동 1041~4
〃	金義煥	대전 서구 가수원동 642